

## 몸을 통해 본 공공디자인과 실내디자인의 의미

오영근 /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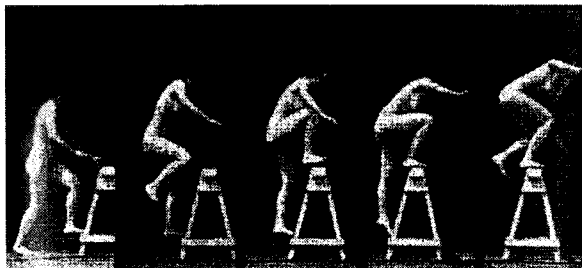
모든 생물은 범주화한다.

심지어 아주 작은 벌레도 자기와 마주치는 것들을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어져야 할 대상으로, 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범주화 한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계의 층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범주화는 우리가 신체화 되어 있는 방식의 결과이며 생존의 방식이다.

우리는 신체와 이를 둘러싼 세계로 공간을 이해한다. 몸의 질서, 율동적인 움직임, 형태, 특히 신체가 표현하는 동작을 통해 공간을 인식하고, 즐기고, 측정하고, 만들고 변화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신체와 움직임의 구조는 공간의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무대이며 우리는 배우가 된다. 시각은 중력에 대한 감각의 정도로 인식에 참여하며, 촉감은 움직임에 대한 팔 다리의 감각과 마찬가지로 인식에 관여한다. 신체는 기능하는 팔과 다리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체험하며 인식한다.

실내와 공공디자인에서의 문은 안과 밖, 이쪽과 저쪽으로 이동하는 신체를 예견하고 표현하며, 거리에 놓여있는 의자는 이 곳에 앉을 사람의 동작이 선취되어 있다. 디자인은 일어난 과거 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가리키는 의미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다.

## 경계- 공간의 안무

후기구조주의에 들어와 의미가 공간과 환경 안에서 우리의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찰하기 위해 현상학, 언어학, 심리학을 통한 연구, 특히 '신체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는 모든 사람의 상상 속에 부여된 자신의 몸이다.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 의식 속에 주어져 있는 공간질서의 틀은 신체의 움직임의 기반이 된다.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신체는 언제나 경계를 지나간다. 여기서 경계는 실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존재하기도 한다.

공간의 형태, 크기, 폭, 위치, 방향으로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체의 경험에 따른 기대와 기억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우리의 생활공간은 무수한 일상적 경계들이 있다.

높고 주의력을 자극하는 경계, 위엄 있는 경계 등 사람들이 넘나들지 않고 아무런 물리적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경계가 있으며,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경계도 존재한다. 또한 나무 경계, 돌 경계, 빛 경계도 있다.

경계는 공간의 안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실내에서 공공공간으로 이동할 때 경계는 여러 가지 리듬으로 공간을 안무한다. 문과 경계, 계단과 통로 앞의 단, 좁고 경사진 골목, 이편과 저편은 형식과 재질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경계는 공간언어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풍부한 목록이다.



## 공간-몸-시간

서있기, 움직이기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도시 속 역사에 발 들여놓기, 도시를 떠나기

사적공간으로 들어가기, 공공공간으로 나가기

문화를 만지기, 문화를 입기

이성에서 감성으로.....